보도시점 (전매체) 5.15(월) 14:00

중소·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과의 동행 1년

- 이영 장관,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핵심정책 과제**들을 설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5일,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역점 정책과제들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영 장관이 발표한 **대표 성과**와 향후 **역점 정책과제**들은 아래와 같다.

1. 대표 성과

[당면 위기극복]

①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새정부 출범 직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당면과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에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경 통과 다음날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이틀 만에 17조 3천억원**, **예산의 75%**를 지급하는데 성공했다.

②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온국민의 소비축제, 동행축제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동행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동행축제는 원래 단순 판촉·할인 중심의 '동행세일'이었으나, 작년 9월 '7일간의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국민이 함께 즐기는 상생소비축제로 확대되었다. 이어서 열린 12월의 '윈-윈터 축제(페스티벌)'까지 합하면 **2차례 동행 축제**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은 **간접·직접 매출**을 더할 때 약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③ 이태원 상권 살리기, 헤이 이태원 사업(프로젝트)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태원 상권은 급격한 침체를 겪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태원 상권이 다시 활력이 넘치는 공간

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헤이, 이태원'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영 장관이 사업(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안한 **이태원 회식 도전잇기(챌린지)**는 서울시장, 주한 아일랜드 대사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며 **이태원 상권 살리기**에 **기여**하고 있다.

④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유동성 공급**

3고 복합위기, SVB 사태에 따른 벤처자금 시장 위축 등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우려될 때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유동성을 공급했다. 먼저, '22. 9월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출범했다. '23.1월에는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80조원** 공급방안, '23.4월에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대상 **10.5조원 추가 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업계 숙원 해결]

⑤ **14년의 두드림,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그동안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납품대금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부담을 중소기업이 오롯이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지난 2008년에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14년 동안**이나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였으나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2년 6월, 이영 장관이 주도하여 '민관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국회, 관계부처, 대기업 등과의 협의 과정이 이어지면서 **'22년 12월**에 드디어 **법제화**에 성공하였다. **14년 동안의 두드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⑥ **벤처기업 성장의 토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벤처기업이 **대규모 지분투자**를 받을 경우, 창업주의 **지분율**이 **희석**되기 때문에 경영권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이에, '20년부터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제도 오남용을 우려하여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일부 있었으며, 그 결과 법사위에서만 법안이 4차례 계류되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인 출신**인 **이영 장관**이 직접 나서 의원들을 설득했고, '23.4월, 법안발의 3년만에 복수의결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벤처기업이 **경영권 걱정 없이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⑦ **국내 최초의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특례 적용,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23.5월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도입되는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2~3곳 조성**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세계(글로벌) 혁신특구는 대학, 연구소 뿐 아니라 세계(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로서 세계(글로벌) 표준에 맞는 실증·인증·허가 체계와 함께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이 제공된다.

[미래도약 준비]

⑧ **중소·벤처기업의 세계시장 개척 지원**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21~’22년 2년 연속 수출 1,1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직접 찾았으며, 뉴욕에서 **2.2억 달러 세계(글로벌) 기금(펀드) 조성 합의**, 보스턴에서 **랩 센트럴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중동에서는 **두바이**에 **1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개소**하고 사우디에서 **사우디 정부측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공간 무상 제공**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⑨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고도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 고도화를 위해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세계(글로벌) 진출 전략(’22.9),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22.11),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22.11) 등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으며 활약하고 있다. 올 1월 **세계가전제품박람회(CES) 2023**에서 우리 창업·벤처기업 **111곳**이 **혁신상**을 수상하며 3년 전(30곳) 대비 4배 가까이 늘었고, 3월 **비반(BIBAN) 2023**에서는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⑩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패러다임) 전환**

보호·지원 일변도였던 **소상공인 정책 체계(패러다임)**을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책방향**을 **설계**하였다.

2. 향후 핵심정책 과제

첫째,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세계(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 한국(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규제 뽀개기를 위해 **핵심규제**를 100개 선정하여 하나씩 **해결**하고,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특례인 세계(글로벌) 혁신특구를 **'한국형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SW)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시장여건**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먼저 전방위적인 **디지털화 촉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지능형(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거점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등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2월 마련한 **지역주력산업 개편**과 연동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소상공인·상생 분야**에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폐업·재기** 상황을 모두 **촘촘히 지원**하는 **경제 안전망**을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윈윈)할 수 있는 **상생 사업(프로젝트)**로서, **함께 성장하는 국민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 협·단체가 **정책 한 조(원팀)**로 뭉쳐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비전이 실현될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 50⁺」비전**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묵묵하게 진격**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관 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420)
		담당자	서기관	김현동 (044-204-74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